

ICN 參 席 報 告

제16차 국제간호협의회 총회

- 주 제 : “간호의 무한대의 가능성을 추구하여”
- 일 정 : 회원국 대표자회의
1977년 5월 29~31일
대회개회식
1977년 5월 30일
학술집회
1977년 6월 1~3일
학생대회
1977년 5월 30일
- 대회장소 : 일본 동경 무도관
- 참가회원국 : 83개국

대표보고 회 장 田 山 草

사무총장 梁 莫 芝

개 회 식

● 순서

- CNR대표 입장
- 개회선언
- 국제간호협의회 회장 개회사

- 일본 간호협회장 환영사
- 일본조직위원회 위원장
- 황태자 축사
- 일본수상 축사
- 동경도지사 축사
- 신가입국 입회식
- 고 선배회원에 대한 묵념
- 폐회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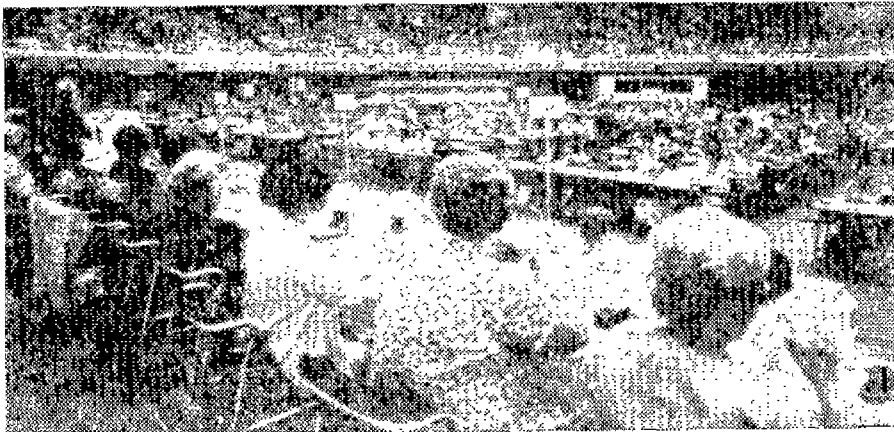
④ 개회식

이번 제16회 국제간호협의회(ICN) 4년차 대회의 회원국대표자회의(CNR)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되었다. CNR은 29일부터 시작 31일까지 3일간 열렸는데 회의중 30일에 개회식이 있었다.

개회식에는 1만2천여명이 모여 83개국 대표가 각각 그 나라의 고유의를 입고 일본간호학생들의 손에 국기를 안착우고 입장했다.

ICN회장을 비롯한 개최국회장, 일본간호협회 회장, 대회준비위원장(개최국)과, 일본황족자녀의, 내각총리대신 후쿠다수상 및 동경도지사등 내빈과 수 많은 세계각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탐모스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ICN회장은 그의 환영사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수한 Health care를 갈망하는 시대라고 지적하여 건강인은 그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를 갈망하고, 보다 다량적인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구한다. 환자는 회복을 위해 재발방지 또는 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지혜를 추구한다. 간호는 지금 환자나 건강인이나 관계없이 같은 Health



〈본 회의장〉

care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불충분하다. 간호원은 Health에 걸쳐 全面的으로 참여해야 한다. 간호원이 그 전문기술과 광범위한 경험과 중립 관철해 오던 인도주의적 사

상과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할때 Health의 발전을 저해하기 어려울 만큼 할 것이나 이것은 도시전 능력이전 산업발전국이전 개발도상국이전간에 별트 상관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간호원은 그의 독자적 능력을 통합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스로 Health care에 대한 개념정립을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간호원은 Health의 계획, 정책결정, 기라 운영, 설비의 충실을 측정하는 의결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개개의 인간의 Health care에 있어 간호원은 그 역할을 확고 시키고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때다. 이와 동시에 간호원이 지닌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은 행정기관, 보건기관의 최고 레벨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간호원 개체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간호원 개인에 대한 또는 시설에 대한 또한 국가적 보건상의 수요에 대한 특유한 통찰력을 간호원에게 부여한다. 간호원은 건강증진, 질병예의 대책에 대한 특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간호원은 이러한 통찰력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른 Health team과 공유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환경이 너무나 위험한 현 황에 있는 현상에서 인간을 公害(大氣, 海, 水)

에서 수호하기 위해 간호원은 적극적으로 이어야 하며 소음규제, 화학물질, 공기나 물을 매개트 하여 오염되는 것—이 모든 것 들은 건강을 저해한다. 이런 것 들이 간호원

에게 차차 닥아오고 있다. 동시에 간호원이 많이 이등하는데. 그 이등현황을 ICN이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보다 전문직업인으로서 바람직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이등하는 목적이 하

나있고, 보다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 해주는 그러한 지역으로 돌아가 행선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드 막을 수 없는 전문직업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또는 보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떤 나라에서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는 권리와 같다. 그리고 간호원이 갖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세계의 Health care가 평준화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 및 보건기관 특히 발전도상국에 있어서는 간호원에게 보다 좋은 교육적, 전문지식적, 경제적 기회들 부여하여 간호원이 자기나라에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각 나라가 그들을 전문직으로서 인정할 때 보다 나은 지위나 공급을 구하기 위해 타국에 이동하는 일은 적어질 것이다. 세계에서 Health care를 개선하는 일은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만약 사회가 Health care의 귀중한 자원인 간호직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이것은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이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P.S.D.가 연구한 결과에 의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다 주는 그러한 회장의 발언을 들었다. 그러면서 “간호원이 이렇게 Health care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세계인류의 복지는 올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류의 요망이다”라는 요지의 환영사를 피력했다.

그 다음 일본 활태자의 축사 요지에서 “이와같은 세계적인 모임은 간호전문직의 지적인 향상에 고무되고 그런 방향에서 인류에게 인간성이 반영될 것이며, 간호계 발전 뿐만 아니라 각나라 국민에게도 여러분을 통해 건강복지의 혜택과 성과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간호원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반영했다.

후쿠다수상의 축사요지는 인간복지증진을 위해서 간호전문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간호사업의 경의를 진실으로 표시했다. 더우기 “간호사업을 통한 Health care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다.

이번대회의 주제 “간호의 무한대의 가능성을 추구하여”라는 주제는 전세계 인류에게 희망을



〈한국 대표석〉

준다고 하였고, 이 대회를 그런 의미에서 환영하고 축하하고 격려한다고 했다.

동경도지사의 축사요지는 “세계인류를 향한 간호전문직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리 즉, 간호교육과 간호원의 지위향상이 되어야 할 것을 통감한다”면서 이 두가지를 정책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선언하여 감동적이고 적극성을 띤 축사를 했다.

이어서 신가입국가 입회식이 있었는데, 금년도 신가입국은 피지, 모리셔스,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센틀시아, 수단, 스와질랜드, 西사모아 및 8개나라가 가입되었다.

이들의 입장식과 자기나라 소개가 계속되었으며,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뒤 돌아가신 선배회원을 위한 묵념이 있었고 치하시간을 가졌다.

이 대회는 일본에서는 가장 큰 말도스 국제대회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일본사회에 간호사업의 중요성과 사회적인 재인정을 든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각회원국 대표자회의의 보고

1. CNR에서 토의된 중요한 의제

회원국 대표자회의(CNR)는 ICN의 88개국협회 회장과 총무로 구성되며, 회의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은 각국 대표 회장 한 사람에게 제한된다. 그러나 제 2일부터는 약 1만여명의 방청객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채택된 순서에 따라 회의는 진행되었고, 회기중 토의된 중요한 의제를 발췌하여 요약해 보고자 한다.

○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각 나라에서 간호원의 연수교육을 체계화하고 촉진하며,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 협회가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간호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재 강조되었다.

○ 간호연구

둘째로 제안내용으로는 새로운 지식의 분별과 전문직 교육 및 실천, 효과적 자원활용을 위해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각국의 간호협회는 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간호연구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이에 관해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간호연구에 관한 성명—

국제간호협의회는 간호연구가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 속의 그칠 사이 없는 급속한 과학적 발전은 새로운 지식을 명확하게 하고 전문직의 실천을 향상시켜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CN은 간호연구가 사회적으로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호연구는 장래에 눈을 볼려면 할과 동시에 과거를 참고하고 현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간호 연구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수준의 지적으로 세련된 자원이 이용되어야 하며, 연구는 공인된 윤리적 기준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구 결과는 널리 유포되어야 하며, 그 활용과 실사가 적절한 것이라면 그것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ICN은 간호원이 간호원의 특유한 영역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보건의 기타 영역에 관한 연구를 관련된 전문직과 협력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영역에서 실무에 관계하고 있는 간호원도 포함해야 한다. 각국의 간호협회는 다른 관련단체와 협력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 인간환경

세계로 인간환경에 대해 지난 75년 싱가포르 C NR 회의에서 채택, 성명서에 첨부하여 인간 환경의 보전을 위해, ① 간호원의 역할과(시민, 전문직의 양자의 경우 포함) ②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및 개선에 있어 간호원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간호원의 특정 행동, 계획을 작성할 것과 사업을 장려하는 것을 장려하는 일, 그리고 원조하는 역할 등이 간호협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토의하였다.

○ 간호직업상의 유동성에 관하여

이번 신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성명서가 채택된 것은,

1. 간호직업상의 유동성(career mobility)으로 그 유동성을 2가지 관점에서 보았다.

가. 상향이동—보다 바람직한 고도의 자격을 얻기 위해

나. 수평이동—보다 만족할 만한 직위에 가려고 이동한다. 즉, 2급에서 1급 간호원의 필요한 여건을 갖추려고 노력 이동하며 또는 지금까지의 간호교육과의 현대간

호에 요구되는 지식과 자격의 gap을 메꾸기 위한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장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간호요원 구성상 공급상 또는 재 편성상 또는 역할 확대를 가능케 하는 이동 현상이며, 바람직한 이동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를 적절한 교육제도에 의해 뒷받침 할 것으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 직업상의 유동성에 관한 설명 —

간호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유동성이란 간호원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간호업무나 수준이 다른 간호업무 또는 직무내용이 다른 직장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동은 적절한 교육제도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직업상의 유동성은 개인에 대해서나 간호직에 대해서나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직업상의 유동성은 간호원이 그들의 능력의 한계내에서 자기들의 직업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또 간호직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직업상의 유동성은 또한 간호인력의 구성과 공급을 확대시킨으로써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사회의 목표를 추진시킬 수 있다. 다른 간호직에 관심을 갖는 간호원의 증가와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는 간호직의 노력, 그리고 간호 수준의 향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모든 것이 간호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실현할 것을 약속해 준다. 따라서 간호협회와 정부, 기타의 기관들이 간호원들에게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수준의 간호에로 이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로 연관된 교육제도를 통해서 직업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간호원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수준을 저하시키기 않고 전에 받은 교육과 경험의 힘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갖는 일이다. 이와 같은 교육제도를 갖기 위해서는 1급의 간호를 실천하기 위한 지식의 핵심과 기술 및 과학적 원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2급 간호원이 1급 간호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배운 내용의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1급 간호원의 승진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는 다른 임상영역이나 다른 직종영역으로 수월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배운 것 이상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ICN은 전문직 안에서의 직업상의 발전도 중요하다

다고 생각한다. ICN은 회원협회들이 자국의 질투, 업무 및 교육제도를 조사하여 간호에 있어서의 직업상의 유동성을 촉진할 교육제도의 발전을 주도하거나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 전문직 간호원의 국제간의 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of nurses)

전문직 간호원의 국제간의 이동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오늘날의 일반적 현상이므로 CNR에서는 간호원의 이동이 Health care에 대하여 영향이 미치는 문제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다루기는 이와같은 복잡한 성격이 내포되었으므로 WHO가 “의사 및 간호원의 국제간의 이동에 관하여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하던 Project 중지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각국 간호협회는 자기 나라 안에서의 간호인재의 수요 및 자타 양국의 간호원의 자격 요건과 고용조건과의 관련에 있어 현상을 검토하여 자국은 물론 타국의 간호사업에 손상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에 있어 현상을 검토하도록 요구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국제간 이주에 관한 설명 —

간호원의 이주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이련에는 경제적, 사회적 발달의 차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고, 이것이 ICN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방침과 행동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ICN과 그 회원협회는 간호실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지지하여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간호원의 국제간 이주가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간 이동의 이유와 결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ICN은 회원협회에 대해서 이 현상의 조사를 시작하거나 참가하여 간호원의 이주와 이면에 관한 국가정책을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필요를 평가한다.
1. 국내의 간호수준을 높게 유지한다.
1. 외국인 간호원의 경우 자국민이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 것과 동등의 자격을 확보한다.
1. 외국인 간호원이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직무에 있는 자국민 간호원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는 고용조건을 획득을 확보한다.

1. 간호원의 국제이주 및 근무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원조한다.

○ 지역사회 간호와 일차 건강관리

1. 지역사회간호에 대한 ICN의 지원

지역사회 건강간호(Community health nursing)에 관한 WHO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의한 제언에 관해 토론했다. 보고의 첫째 제언은

①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전 인구가 속하는 Primary health care service 현내에 미쳐 제공되는 service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보증할만한 지역사회 간호업무가 일층 더 발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제 2의 제언은,

② 기초 및 연수교육의 중심 목적을 지역주민의 건강에 두도록 하는 방향의 간호교육과 계획이 발전되어야겠다는 것이었다.

2. Primary health worker (일차 건강관리 요원) Team work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 설명했다. 여기서 일차 건강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일상 우리가 건강에 이상을 생각하고 의사의 필요를 느끼거나 혹은 현재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을 보존 증진시키려고 할 때 지역사회 보건담당자에게서 받는 최초의 service 이다”라고 정의했다.

● 각 회원국의 결의안

○ 간호원의 경제와 복지에 대해 미국간호협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간호전문직의 경제와 일차복지 조건에 대한 결의안에서,

1. 사회가 국민복지에 관한 간호원의 공헌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적 보수를 수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언급하고 있으며,

생명안 : 각국 간호협회가 간호원의 적절한 수준의 사회, 경제적 보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계획과, 간호원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간호원이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조려가지 계획을 갖도록 권의했다.

또한 이에 관한 스웨덴간호협회는 앞으로는

1. ICN은 그 활동의 있어 간호원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므로

2. 기본적인 노동조합교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이다.

3. ICN과 그의 회원국 단체는 국내 및 국제 조직과 협력을 깊이 할 것이다. 등에 관해 제안했다.

CNR회의에는 ICN에 의한 간호원 고용 및 노동생활조건에 관한 국제문서에 대해 최신 정보가 주어질 것이다.

이 국제문서의 최종적 양식과 내용은 6월 ILO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 회의에 ICN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ICN이 이에 대한 완전한 활동에 대해서 회장, 총무가 활동보고를 하였다.



<신규회장이 함께>

2.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원국대표자회의(CNR) 결의 사항보고

인준사항

1. 회의일정 및 회의진행방법—계획된 일정과 진행방법 즉, 원안대로 시행하기를 「피지」 등의, 「자마이카」, 재청으로 전원 찬성 인준하다.
2. 전회의록 인준 전—1975년 8월 「싱가포르」, CNR 회의록 수정, 「덴마크」 등의, 「나이지리아」 재청으로 수정사항 없이 받아들일 것을 전원 가결 인준하다.
3. 신회원국 가입 건—
1976년 7월 22일 실시된 신회원국 가입투표에서 「파타고아」 「수단」 「西·사모아」는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을 필리핀 등의, 독일 재청으로 전원 찬성 인준하다. 「베네수엘라」 등의, 「하티티」 재청으로 「온두라스」는 정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원가결 추가 인준하다.
4. ICN 회장 보고
회장 보고서는 Item 9에 제시된 원안대로 받기로 「나이지리아」 등의, 「피지」 재청으로 인준하다. (Item 9. 원안생략)
5. ICN 총무 보고

총무 보고서 원안대로 받아들일 것을 「자마이카」 등의, 「덴마크」 재청으로 인준하고 이어 미국간호협회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

「에이들·허위즈」 ICN 전총무의 지난 7년간의 총무직 사임에 있어 ICN의 정책 및 계획을 능숙한 외교와 긴 안목으로 수행했으며 탁월한 행정력, 지도력으로서 ICN을 빛냈으며 각료였고, 그녀가 지닌 우아함, 인간성 및 통찰력으로 세계보건사회와 간호원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세계의 간호사업과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헌신했으므로 ICN은

「에이들·허위즈」의 공적을 인정하고 세계의 간호지도자로서 추대한다는 미국의 제안에 「케냐」가 동의, 전원 찬성 인준하다.

6. 전문사업위원장 보고(Report of the professional service committtse) 인준에 관한 건

· “간호연구에 관한 사항”

「西·사모아」 등의, 「뉴질랜드」 재청으로 인준.

· “인간환경보호에 있어서 간호원의 특수역할의 수행론”에 관한 사항

「필리핀」 등의, 「이스라엘」 재청으로 원안대로 인준.

· 간호직업상의 유동성에 관한 사항

이에 대한 토의는 5월 30일이나 5월 31일에 토의하도록 보류하자는 안에 「오스트리아」 등의, 이집트 재청으로 결정하다. 간호직업상 유동성에 대한 첫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결의함.

“지역사회의 건강간호”에 대한 WHO 전문위원회보고(보고서 시리즈 558호 1974. 제네바의 WHO 전의에 대한 토의사항)

○ 「자마이카」 제안

간호활동에 관련된 1차 건강관리자들은 간호원들이 그들의 교육계획을 준비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또 그들의 교육과 활동도 역시 간호원이 준비, 감독, 평가할 것을 촉구한다.

○ 미국 제안

미국간호협회는 인상적인 보고를 위해 전문사업위원회를 추천하나 그중 관심사에 대한 논평을 기입하기를 제안한다.

전문적인 간호전달체계의 모형은 기원이나 가정에서의 1차 건강관리라고 하겠다. 그리고 간호원의 확대되는 역할은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병원, 진료소, 또는 가정에서의 간호전달에서 준비과정을 분리지킴으로서 간호전달과 간호교육의 분별 가능성이 지역사회 건강간호에 관한 WHO보고에서 나온 것 같다. 따라

서 미국간호협회는 ICN과 회원국이 미래를 내다 보고 건의를 신중히 살펴보고 건강관리가 제공 되는 전 지역사회속에서 예비건강관리로서의 간호를 생각하도록 촉구한다.

“간호경력직의 직업상의 유동성의 성격을 분석 하던 간호원이 좀 더 발전된 간호실현과 또는 다른 영역의 간호, 혹은 다른 기능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 관계되는 분야의 연수교육체제로써 이를 지지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제안에 「영국」이 재청하였으며,

“posts”란 용어를 “position”으로 바꾼다는 「영국」의 수정안을 승인하고 「영국」수정안이 인준됨. (3개국 기권).

○ 「스페인」은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하였다

1. 「스페인」의 동의안에 「베네수엘라」가 재청하였으나 부결됨.

그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CN의 직업상의 경력 유동성에 대한 의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목을 “간호경력증진에 대한 ICN 성명”으로 바꾼다. 첫 부분을 간호경력직의 증진은 좀 더 발전된 간호 혹은 통일된 체제 내에서 책임있는 지위로 옮겨 가는 것이다” 또한

1. 「푸에르토리코」의 동의안에 「뉴질랜드」가 재청하여

“ICN 회원국은 지역사회 건강간호에 대한 WHO 전문위원회 보고를 검토하고 특수 국가의 요구와 자원 내에서 건강간호확충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력을 취한다”는 내용을 인준하다. (1개국 기권).

“간호원 이민에 대한 의결안중 ‘ensure’를 ‘assure’로 바꾼다는 것을 인준함.

“간호원 이민에 관한 PSC의 보고를 받아 들인다”는 「덴마크」의 동의안에 「노르웨이」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1개국 기권).

“간호원 국제간 이주의 확대와 복잡성 때문에 ICN 이사회는 기초적인 문서로 부터 나온 건의에 적절한 개념과 실행에 관한 우

선 순위를 삽입한다”에 대한 「미국」의 동의안에 「필리핀」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절적, 양적으로 특수성을 나타낸 전문사업위원회의 증회에서 활약은 기술, 통찰력, 헌신, 전문성 및 전세계 간호사업에 미친 영향, 또 앞으로 계속 활약한 활약이 있을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ICN은 Dr. 「레베카. 버그만」 위원장인 PSC의 훌륭한 업적에 깊이 감사하며, PSC위원과 도와 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자마이카」의 동의안에 「피지」의 재청에 판장일치의뢰박수로 가결하고 전문사업위원회의 보고를 「이탄」의 동의안에 「이집트」 재청으로 인준.

7. 간호원의 사회, 경제복지에 관한 건

1) 간호인력의 고용 및 작업조건과 생활보장에 대한 ILO의 역할

“1977년 6월 스위스 제네라에서 열리는 국제노동회의에 다음의 전문을 보내도록 하다. 즉 동경에서 모인 ICN의 CNR 대표들은 축사와 63회 국제노동회의의 성공을 비는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낸다.

“88개 회원국은 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간호인력의 고용 및 작업조건과 생활보장에 대한 세계적인 기구가 간호원이 온 인류를 위해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 개선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동의안에 「뉴질랜드」 재청으로 인준.

2) 「미국」의 사회, 경제복지 안을 약간의 문구 수정으로 인준하다.

8. 회원국 제의안

1) 「캐나다」 제안과

2) 「탄자니아」 제안 인준 (1개국 기권).

9. ICN 기관지 International Nursing Review에 관한 보고서 인준 건. 「이스라엘」동의 「아일랜드」재청으로 인준하다.

10. Agenda Item 16.

ICN 1975년도 결산은 「오스트리아」동의, 「이집트」 재청으로 인준하다.

- ICN 1976년도 결산은 「핀란드」 등의, 「영국」 재청으로 인준.
- 1975년도 FNIF (Florence Nightingale International Foundation) 결산. 「오스트리아」 등의, 「콜롬비아」 재청으로 인준.
- 1976년도 FNIF 결산. 「일본」 등의 「노르웨이」 재청으로 인준.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안에 대해 회장은 앞으로 ICN 이사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안의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11. ICN회비 연등율에 대한 보고 「터키」 등의, 「미국」 재청으로 인준.

12. ICN 이사회 회의

- 1) “1979년도 CNR회의에서 1985년도 총회 참석 초청장을 전달하고 1985년도 총회장소를 결정한다”에 대한 안이 「자마이카」 등의, 「핀란드」 재청으로 가결.

13. 새로 선출된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Agenda Item 22.

- 회 장 : Olive Anstey, Australia
 제 1 부회장 : Rebecca Bergman, Israel
 제 2 부회장 : Verna Huffman Solane, Canada
 제 3 부회장 : Hildegard Peplau, U.S.A.
 무임소이사 : Ang Mun Moi, Singapore
 Ingrid Hamelin, Finland
 Eu-nice Muringo-Kiereini, Kenya

아프리카지역이사 : Sheila Quinn, United Kingdom
 Eleuse Duncen, Liberia

- 동지중해 " : Hend Abdel Al, Egypt
 유럽 " : Marie-Louise Badouaille, France
 북미 " : Eileen Jacobi, U.S.A.
 중남미 " : Syringa Marahall-Burnett, Jamaica
 동남아 " : Annamma Cheian, India

서태평양지역이사 : Fe Valdez, Philippine
 14. 기타 사업

- 1) “CNR은 PSC의 발전과 ICN 및 건강관리와 간호사업에 대한 합목적성을 토의한다”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제안과

“ICN사업목표 중의 하나는 회원국의 간호원 환경개선을 도와 주는 것이며, 환경이란 전문성의 정도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CNR의 의견을 고려하며, ICN과 각 회원국협회와의 접촉이, 대략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며, ICN은 이사회가 최선의 연구방법을 결정하고 이 연구에 우선권을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을 결의한다”에 대한 「콜롬비아」 등의안에 「스페인」 재청으로 가결하다.

“CNR은 각국 협회가 간호원의 단차교섭권을 가지며, 간호원과 간호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한다”에 대한 「케냐」 등의안에 「가나」 재청으로 가결(반대 : 3개국, 기권 : 7개국).

2) ICN이사 지명에 대한 제의

“ICN이사회는 신입이사 지명과 현 정책 및 수행과정에 대해 평가한다”에 대해 「케냐」 등의, 「캐나다」 재청으로 가결.

3) 건강관리요원에 대한 새로운 규정 요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가나」 「이스라엘」 「케냐」 「영국」 및 「미국」은 “확대된 건강관리요원의 새로운 역할과 전세계 간호사업 및 건강관리사업의 확대에 대해 ICN이사회는 지위향상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제출 가결하다.

4) 전 총무 Miss Adele Herwitz에게 보내는 전문 채택

전문내용 : “동경에서 열리는 CNR회의에서 따뜻한 인사말을 보내며 우수한 보고서와 지난 7년간의 지도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는 바이다”에 대한 「스위스」 등의안에 「핀란드」 재청으로 가결.

건문 채택되다.

5) ICN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ICN이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관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ICN의 목적 목표 및 기능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 등의, 「오스트레일리아」 재청 가결되다.

6) 선물로 받은 ICN기

“Miss Margarethe Kruse”가 1974년 ICN에 기증한 기가 처음으로 총회에 사용된 이래 16차 총회때 동경에 모인 CNR 대표는 ICN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기증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ICN회장을 지낸 Miss Kruse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전세계 간호원 모두가 깊이 감사하고 있다.”

에 대한 「룩셈부르크」 동의안에 「그리스」 재청으로 가결.



<한국 전시관을 둘러보는 회원국 대표들>

학술대회에 관한 보고

본 회의 강연

연 제 : “세계 각국의 새로운 간호 실제”

일 자 : 1977년 6월 1일 수요일

· 의장의 인사말

의장 : Anne J. Davis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정신
위생 및 지역사회 간호학 부교수

· 부제 : 아프리카지역의 새로운 간호실제

연사 : Eunice Muringo Kiereini

케냐 보건청 간호국장, 케냐
간호협회장

· 부제 : 동지중해지역의 새로운 간호실제

연사 : Enaam Abou-Youssef

알렉산드리아대학 고등 간호
연구소 부교수,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건강훈련계획

조산간호원 교육가

· 부제 : 북미의 새로운 간호실제

연사 : Rosella M. Schlotfeldt

Case Western Reserve Un-
iversity, Frances Payne
Bolton 간호학교 교수

10 : 30~11 : 00 휴식시간

11 : 00~12 : 30

· 부제 : 중남미의 새로운 간호실제

연사 : Irma Sandoval

코스타리카대학 간호학 과장

· 부제 :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간호실제

연사 : Hilda De Silva

스리랑카 국립의료원 간호과
장, 스리랑카간호협회장

· 부제 : 서태평양지역의 새로운 간호실제

연사 : Hsin Hsin Chung

타이완대학 부속병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사협회

본 회의 토론

- 일 자 : 1977년 6월 2일 목요일
- 시 간 : 09 : 00 ~ 12 : 30
- 의제 : “간호교육의 새로운 접근법”
- 토의의제 : 간호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공학 위주의 실험실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것 보다 뛰어나나
- 좌장의 인사말
좌장 : Johanna Van Maanen
네델란드병원 과학연구소 간호연구부장
- 찬성발언자 : M. Josephine Flaherty
서온타리오대학 간호학장 및 교수, 시바대학 간호학교 간호원리 및 간호실제과 교수
- 반대발언자 : Rosette-Aline Poletti,
‘Lo Bon Secours’ 간호학교장, 제네바대학 간호학강사, Syringa Marshall Burnett
서인디아대학 고등간호교육 강사, 자마이카간호협회장
- 관정관 : Adetoun Bailey
나이제리아간호협회의 사무총장, 나이제리아 전문직 간호원협회 회장, Sara Alicia Ponce de Leon,
멕시코 국립공예강습소 교수, Marie-Paule Florin, 프랑스 상베리병원 간호연구과정 교수
- 의제 : “간호교육 변화의 초점 : 1차 건강관리”
- 좌장 : Awatif Osman
수단 카르툼간호대학장
- 연사 : ○ Alice Akita, 가나대학간호학과
○ Madeleine Leininger, 미국 유타대학 간호학장 및 교수
○ 김보임, 대한간호협회 제 1 부회장, 연세간호대학 교수
○ Amalia Mangay-Maglacas 제네바 WHO 건강인력 개발과 고등간호연구자

본 회의 강연

- 연 제 : “간호전문직책임에 관한 새로운차원”
- 일 자 : 1977년 6월 3일 금요일
- 시 간 : 09 : 00 ~ 12 : 30
- 의장의 인사말
의장 : Jean Kennedy McFarlane
영국 맨체스터대학 간호과장 및 교수
- 부제 : 간호의 권위
연사 : Huguctte Labelle,
오타와, 인디안 및 에스키모 문제, 정책연구 및 평가분과 사무총장
- 부제 : 간호원의 권리
연사 : Mary E. Patten,
오스트레일리아 간호협회 사무총장
- 부제 : 간호원의 독자적 공동적 책임
연사 : Anne Zimmerman
미국간호협회 회장
- 반응자 : · Kunie Hokama, 오키나와 유꾸대학 건강학대학
· Lydia Palaypay, 마닐라극동대학 간호학연구소교수 및 소장
· Jackie Koroi 피지간호협회 회장

특별 분과 회의

- 연 제 : “세계 각국의 새로운 간호 실제”
- 일 자 : 1977년 6월 1일 수요일
- 시 간 : 15 : 00 ~ 17 : 00
- 부제 1. “환경 및 사회의 변화. 간호 실제에 미치는 영향”
- 가. 가나간호협회
좌장 : Edith S. Saki Qualtey,
Senior Nursing Officer, Korla Teaching Hospital, Accra, Ghana
연사 : · Alice L.N. Akita, 가나대학 간호연구과정 간호강사
· Patrick K. Agbleze, 정신병원 간호과장

- Joana Samarasinghe, 보건성 계획과 간호계장
- J.B. Quaison, 간호훈련학교 간호과장

나. 미국간호협회

좌장 : Rose McKay

플로리다대학 간호학교 교수

연사 : · Verona C. Gordon, 구수타부스

spins St. Crispins Hospital 정신과 간호과장

· Elizabeth McAlister, 빅토리아병원 Respiratory ICU 병동간호원

· James P. Smith, 브렌트 건강지역 간호과장 Central Middlesex Hospital

· Betty M. Barchard, 아동병원 간호과장

부제 3. “간호 전달 체제의 변화”

가. 인도간호협회

좌장 : Annamma Cherman. 의학교육 및 의학조사연구소간호대학장

연사 : · Ruth Harner; 간건강협회고문, 인디아

· Pauline E. King;

간호고문, 기독교의과대학병원

· S.A. Sammuell; 의학교육 및 의학조사연구소 간호대학 강사

나. 국제보론회

좌장 : Syringa Marshall Burnett

연사 : Ivy Jarrett Brown

마취간호원, 킹스톤병원

부제 4. “간호원의 역할 변화”

가. 오스트레일리아 간호협회

나. 캐나다 간호협회

좌장 : Rose Imai

캐나다 사회복지 간호부장 대리

연사 : · Irmajean Dajnok, 간호학 부교수 캐나다

· Stephany Grasset, 밴쿠버 지역 사회 보건간호원

· Rita Lussier, 간호보수교육 고문, 캐나다

· Gladys Smith, 글레이스만 간호산업과장, 캐나다



〈발표하는 김드임박사〉

아달푸스대학 간호학 부교수

· Imogene M. King, 트올라대학간호학교 교수

· Amie Modigh, 간호과장—GNP, Sailors Snug Harbor, Sea Level, North Carolina, USA

· Elaine Wittman, 아델피대학 간호학교 교수

부제 2. “건강과 질병에 대한 태도의 변화, 간호실제에 미치는 영향”

가. 이스라엘간호협회

좌장 : Judith Steiner-Freud

부총장, Szold-Hadassah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연사 : · Nourith Bon-Dov, 보건성간호과장

· Tamar Dayan, ‘Shalvatah’정신의료센터 수간호원

· Lea Zwanger, 건강전문직연합부부장

· Dina Evron, 예루살렘 보건간호

나. 영국간호협회

좌장 : Catherine M. Hall

영국간호협회 사무총장

연사 : · Antony R.G. Harrison, St. Cri-

특별 분과 회의

연 제 : “간호교육의 지침 변화”

일자 : 1977년 6월 2일 목요일

부제 1.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간호원의 교육—기초 간호교육의 제시"

가. 국제토론회

연사 : ○ Madeleine Leininger

○ Kok Kee Har, 종합병원 부인과, 말레이시아

○ Lim Keng Lee, 쿠알라룸푸르간호학교 간호연구과정 강사

나. 국제토론회

연사 : · Shirley M. Bohm, 뉴질랜드 보건성 간호과장

· Joan M. Gilchrist, 캐나다 맥길대학 간호학과장

· Fe M. Valdз, 필리핀간호협회장

부제 2. "보수교육, 능력 유지의 필수조건"

가. 국제토론회

좌장 : Joy Motley, Principal Nurse, St. Helen's Hospital Wellington, New Zealand

연사 : · Signe S. Cooper, 위스콘신대학 공개강좌 의장 및 교수

· Sarah Goldiak, 이스라엘 간호협회장

· Irmgard Sinon, 서독간호협회 지역사무소 사무총장

· Tamako Toguchi, 동경 정신과 연구소 간호부장

나. 영국간호협회

좌장 : Margaret D. Green, 영국간호협회 교육부장

연사 : · Majorie Gardener, 임상간호 공동연구소장

· Charlotte Kratz, 'Nursing Times' 기자

· Sheila Quinn, 지역간호과장, 햄프셔지역 간호당국

· Sylvia Margaret Cole, 브리스톨 건강지역 고등간호 과장

부제 3. "고등교육—간호원은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가. 국제토론회

연사 : · Birthe Wernberg-Moller, Chairman, Ringkobing County Branch, Danish Nurses Organization

· Hilda De Silva, 스리랑카 의사

· Patricia V. Slater, 간호협회장

· Patricia V. Slater, 간호대학장 링컨건강대학, 간호학교장, 델버른

나. 미국간호협회

좌장 : Eileen M. Jacobi

텍사스대학 간호학교

연사 : · Imogene King

· Ildaura Murille-Rohde, 워싱턴대학 간호학교 부학장

· Virginia Ohlson, 일리노이대학 간호대학 보건간호 과장 및 교수

· Judith Whitaker, 뉴욕주립대학 엘보니간호학교 보수교육 과장 및 교수

부제 4. "교육연구"

가. 미국간호협회

좌장 : Ada Jacox, Chairperson, ANA Commission on Nursing Research

연사 : · Joan Cobin,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간호과장

· Susan Gortner, 건강, 교육 및 복지부 간호과 간호 연구계장

· Mary S. Hill, 건강, 교육 및 복지부 간호과 간호교육계장

· Rose McKay, 콜로라도 의료센터 대학 교수

나. 국제토론회

좌장 : Helen Mussallem

캐나다 간호협회 사무총장

연사 : · M. Josephine Flaherty,

· Rosario S. Diamante, 필리핀 여자대학간호대학장

· Rosario P. Perpunan, 고위 교육 연구가, 마닐라 고등교육국 교육문화부 특별 고문

특별 분과 회의

연 제 : "간호전문직 책임의 새로운 차원"

일 자 : 1977년 6월 3일 금요일

시 간 : 14 : 00 ~ 16 : 00

부제 1: "간호원의 인식.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며 타인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가?”

가. 국제토론

좌장 : Grace Pilgrim

바르바도스간호협회 제 1 부회장

- 연사 : • Euinice Muringo Kiereini, 보건성 간호과장, 케냐간호협회장
- Martha Quivey, 하우켄랜드병원 간호과장, 노르웨이
- Margaret Staunton, St. Finbar 병원 간호교사, 아일랜드

나. 국제토론

좌장 : Vichien Thavilab,

마티돈대학 간호대학 부학장, 태국

- 연사 : • Yuko Minami, 코시대학 건강간호학교 부교수, 일본
- Christine M. Chapman, 웨일즈 의과대학 고등간호 연구부장
- Eva Sanderson, Matron, Kitwe Central Hospital an Nurse Training School, 잠비아

부제 2. “간호와 기타 전문직과의 관계—현실과 목표”

가. 국제토론

좌장 : Mayerch Fotoohi

이란 간호협회장

- 연사 : • Serara Segarona Kupe, 보즈와와 보건성 간호과장
- Shirl H. Pinkerton
- Jennifer James, 캔버라 지역 사회 병원 간호과장

나. 국제토론

좌장 : Kola Oyedepo

나이지리아 이바단대학 간호학과 강사

- 연사 : • Gerd Zetterstrom-Lagervall, 스웨덴 간호협회장

- Mary Jane Seivwright, 자마이카 서인도대학 고등 간호교육장

부제 3. “간호원의 법적 및 사회적 책임”

가. 국제토론

좌장 : Nadia Osborne,

씨에라레온 국립간호학교 교장 및 간호교사

- 연사 : • Friederike Dittrich, 오스트리아 간호협회장, Steiermark 간호국장
- Urban E. Lesmond, Golden Hope Hospital 달당간호원, St. Lucia 간호협회장
- Maria A. Dostinga, 베넬란드 건강전문협회 사무총장
- H. Abdel-Al, 카이로 고등간호기관 장사

나. 국제토론

좌장 : Helen K. Mussallem,

캐나다 간호협회 사무총장

- 연사 : • 이선자, 서울보건대학원 부교수, 대한간호협회 상임위원

부제 4. “21C를 향한 전문 단체”

가. 국제토론

좌장 : Stavroula Papamicrouli,

Hellenic 적십자사 간호부장, Hellenic 간호협회장

- 연사 : • Shona M. Carey, 뉴질랜드 간호협회 사무총장



<특별 분과토론에서의 연사 이 선자, 조교수(한복)>

- Rachel Emily Marshall, WHO
 콩고지역 사무관
- Ruth Perez, 푸에르토리코 간호
 학교 증진인가 사무소 부감독

나. 국제토론

좌장 : Annamma Chemical

인디아 의학교육 및 의학조사 연구소
간호대학장

연사 : · Eva Holm Christensen, 덴마크
 간호협회 사무총장

· Koi Eng Lau, 싱가포르 종합병원
 간호학교 고등교육교사

국제 간호학생회 보고

5월 30일 오후 6시 부터 개최된 세계 간호학
생대회 의 내용은 간략히 보고하고자 한다.

간호학생대회 의장에 미국의 흑인 남자간호학
생 Cleo Dester를 선출하였으며 이어 동대화 석
상에서 몇건의 Recommendation이 채택되어
이를 31일 개최중인 CNR에 제출할 것을 가결
했다.

1) 매 4년마다 비공식적으로 학생대회도 모일
것을 가결했다. 회의중 정식회합을 갖자는 의견
도 있었으나 학생은 수업이 끝나고 졸업하면 지
속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경비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결되다.

2) 학생대회에서 최대의 고민의 하나로 대두
된 문제는 학생 자기들이 일반졸업간호원과 마
찬가지로 이용되고 있어 그때문에 발생하는 불
만에 관련된 문제점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일부 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시간의 근무, 근무
내용야근등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실을 간호교육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이구동성으로 의의를 표명
했다.

이와같은 일들은 학생에게나 환자에게나 양자
의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고 발언했다.

폐 회 식

일 자 : 1977년 6월 3일 금요일

시 간 : 19 : 00~20 : 30

장 소 : 일본 동경 무도관

참석자 명단

- 전산조 <본회회장, 연세간호대학장, 이학박사>
- 김모임 <본회제 1부회장, 연세 간호대학교수,
 보건의학박사>
- 홍영숙 <본회제 2부회장, 적십자간호전문학교장>
- 유성순 <본회중앙이사, 기독교언더우드소녀관장>
- 김순자 <본회중앙이사, 고려의대간호학과교수>
- 방용자 <본회중앙이사, 성바오로병원장>
- 이성옥 <본회중앙이사, 고려병원 간호과장>
- 양은숙 <본회중앙이사, 한강성심병원간호과장>
- 최상순 <본회중앙이사, 경희의료원간호과장>
- 양막지 <본회사무총장>
- 김금련 <본회 부산지회장, 일신부인병원간호과
 장>
- 양인실 <본회충북지회장, 청주간호전문학교장>
- 공순구 <본회전북지회장, 전주예수병원간호과장>
- 정순자 <본회전남지회장, 광주기독병원간호과장>
- 배정옥 <본회 경남지회장, 마산시청보건소 감독
 간호원>
- 변철자 <본회학술위원, 경희간호전문학교부교수>
- 이광옥 <본회운영위원, 이대간호대학 조교수>
- 이선자 <본회총괄홍보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교수>
- 이춘애 <본회운영위원, 서울시립정신병원간호과
 장>
- 이춘원 <본회학술위원, 성모병원간호과장>
- 최연순 <본회서울시지회제 1부회장, 연세 간호
 대학교수>
- 이문자 <본회 서울시지회제 2부회장, 국립의료
 원 간호과장>
- 전춘영 <본회 서울시지회실행이사, 연세의료원
 간호과장>
- 한윤복 <본회서울시지회실행이사, 가톨릭의학부
 간호학과교학감>
- 최영희 <본회서울시지회이사, 이대간호대학조교
 수>
- 김영숙 <본회서울시지회 사무국장>
- 김치수 <본회부산지회이사, 칠레병원간호과장>
- 황보선 <본회부산지회이사, 부산의대간호학과장>
- 김명숙 <회원>
- 박양자 <부산 일신부인병원 간호과장>
- 선일선 <고려의대 간호학과>
- 유정희 <성바오로병원 간호과장>
- 한정석 <연세간호대학 조교수>
- 황정금 <제일병원 간호과장>
- 후란씨스데리사 <목포성윤롭반 간호전문학교장>
- 레베카발렌거 <전주예수병원 간호과>
- 에브리프라이더 <목포성윤롭반병원 간호과장>

제16차 ICN총회 주제강연 해설

제16차 國際看護協議會 總會에서 “看護의 無限한 可能性의 追求”란 主題를 다루게 된 것은 Dorothy Cornelius會長의 人事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卽 世界 곳곳에서 活動하고 있는 看護員들은 人類의 健康管理를 遂行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擔當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看護員들은 保健醫療傳達制度의 未滿點을 補完하여 보다 많은 人口의 住民에게 보다 良質의 健康管理를 보다 能率적이고 効果적으로 提供할 수 있는 方法에 對하여 研究하고 努力해 왔습니다. 그러하여 保健醫療서비스의 一次健康管理領域에서 保健醫療팀의 다른 어느 要員보다도 經濟적이고 能率적이며 効果적인 역할을 수행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갖춘 전문적으로 成長하기 爲하여 이미 반듯음을 始作하였거나 始作하려고 準備段階에 있는 境遇가 大部分이라고 봅니다.

이와같이 이제까지 傳統的으로 遂行하여 온 看護員의 역할, 말하자면 病院中心活動으로 아픈 患者의 傷病看護를 醫師들의 指示에 依하여 治療爲主의 立場에서 遂行시킨 역할에서 보다 發展하고 擴大시키어 地域社會의 어느 場所에서나 住民들의 健康管理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爲하여 健康의 유지, 增進과 保護 그리고 疾病의 豫防과 治療 및 再活에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하여 獨自의 判斷과 독특한 技術을 遂行시켜야 할 可能性과 展望을 看護員 自身에 依해서 뿐만 아니라 社會의 要求에 依해서 내다보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本主題를 내걸고 世界各國에서 모인 看護員들이 個人的 立場에서 그

리고 專門職業的인 立場에서 本會議의 特別分科委員會의 討議를 通하여 看護를 教育和 看護實務 및 看護專門職의 團體로서 혹은 個人으로서 갖고 있는 權利와 實務에 對하여 再評價를 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새로운 方法을 모색해 봄으로써 變化하는 社會와 새로운 保健醫療傳達制度의 실시에 對備하여 準備를 하고 우리의 力量을 기르는 方法을 모색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本會議를 通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看護實務의 새로운 方向과 새로운 역할, 특히 一次健康管理 領域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變化에 맞추어 看護教育에서는 어떠한 教育理念을 갖고 어떤 教育目標로 어떤 教育方法을 通하여 어떤 역할을 遂行해 낼 수 있는 看護員으로 教育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對하여 妥의와 意見交換을 하고, 이와 같이 準備된 看護員들이 社會에서 看護員의 權利와 實務를 올바르게 遂行시키어 나가기 爲하여는 看護員 個人立場에서 어떠한 指導力과 人間性 및 判斷力과 價値, 信念, 知識을 갖고 行動을 하여야 하며 專門職 團體로써는 國合된 行動을 取하면서 看護員의 권익과 社會的 責任은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妥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機會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本主題는 世界各國의 看護員이 갖고 있는 共同 關心事였으며, 그래서 진지한 態度로 本會議의 特別分科討議에 참여하는 것을 觀察할 수가 있었으며 따라서 成功的으로 총회를 끝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선 자 교수〉